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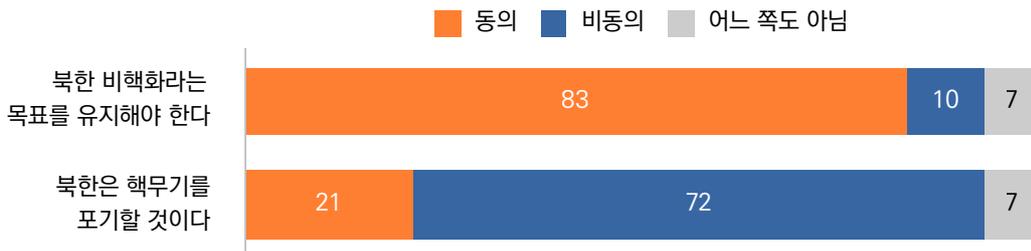


[한국인의 핵무장 인식]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북한은 핵무기 포기 안 할 것!'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한반도 안보 정세의 방향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은 2013년부터 매년 한국인의 대미, 대일, 대중, 대북 인식 조사를 실시해 왔는데, 최근 발표한 결과를 통해 우리 국민의 북핵 관련 인식을 살펴본다.
- 북핵 관련한 진술문을 제시하고 동의 정도를 물은 결과,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 국민 대부분(83%)이 동의했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에 21%만이 동의하고 72%는 동의하지 않아 북핵 해결이 쉽지 않은 현실임을 나타냈다.

[그림] 북핵 및 대응 관련 주장 동의 정도* (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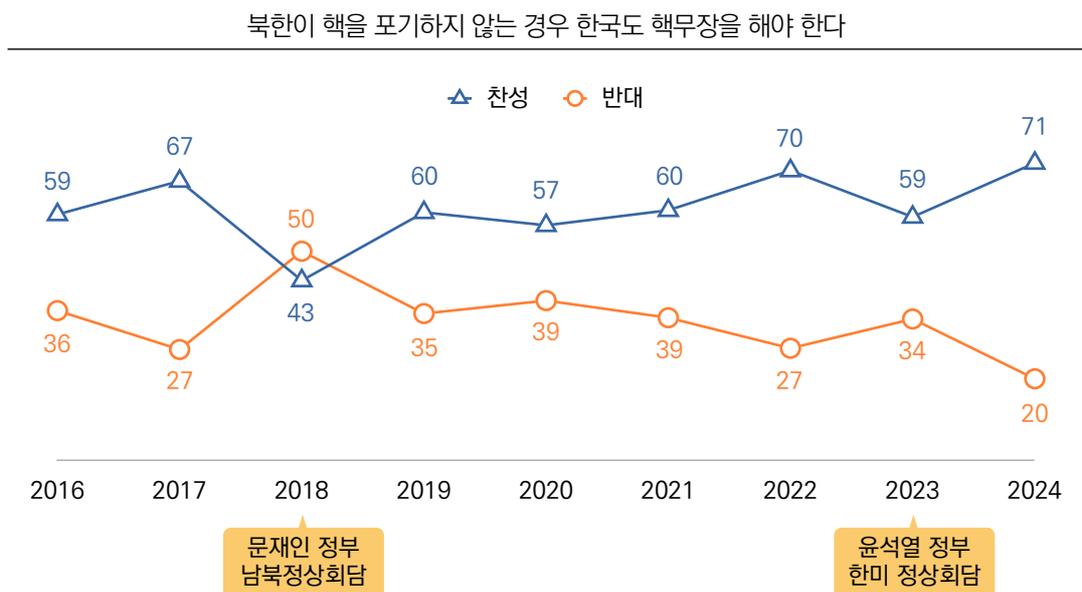


※출처 : 동아시아연구원(EAI), '2024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2024.10.24. (일반 국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 2024.08.26.~08.28.)
*4점 척도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북핵 위협 지속 시 한국도 핵무장 해야 한다!'

- 우리국민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 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을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71%)이 동의했다. 이는 이른바 '평창의 봄'이라고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 북한이 총 69회에 이르는 기록적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2022년 70%까지 올랐던 한국의 핵무기 보유 찬성율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확장억제 운영 방안을 적시한(워싱턴 선언) 2023년에 59%로 낮아졌다가 다시 반등한 것이다.

[그림] 북핵 위협 지속 시 한국 핵보유 찬반 여론 추이* (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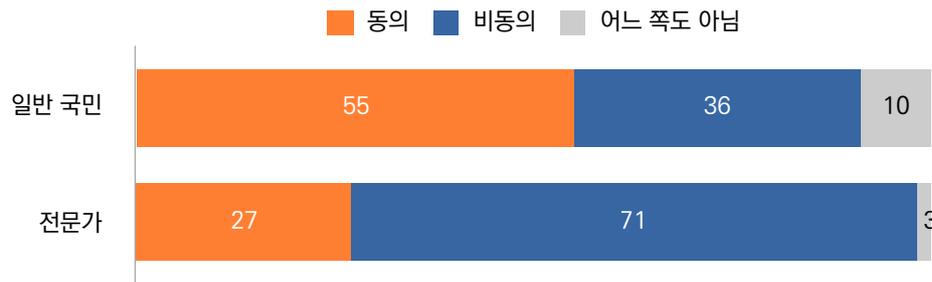
※출처 : 동아시아연구원(EAI), '2024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2024.10.24. (일반 국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 2024.08.26.~08.28.)
*4점 척도

우리 국민 절반 이상, '북한은 필요하다면 남한에게 핵무기 발사할 것'!

-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 이외에 국제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자, 언론인, 정부 및 공공기관 종사자 102명을 대상으로도 진행했는데,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북핵 관련 인식 차이는 어떤지 살펴본다.
- 일반 국민들은 북한의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55%가 동의), 전문가 다수는 71%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어, 두 그룹 사이에 인식 차이가 컸다.

[그림] 북한의 핵 선제 공격 가능성 인식*: 일반 국민 vs 전문가 (%)

북한은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출처: 동아시아연구원(EAI), '2024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2024.10.24. (일반 국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 전문가: EAI펠로우 학자/언론인/외교관 102명, 웹조사, 2024.08.26.~0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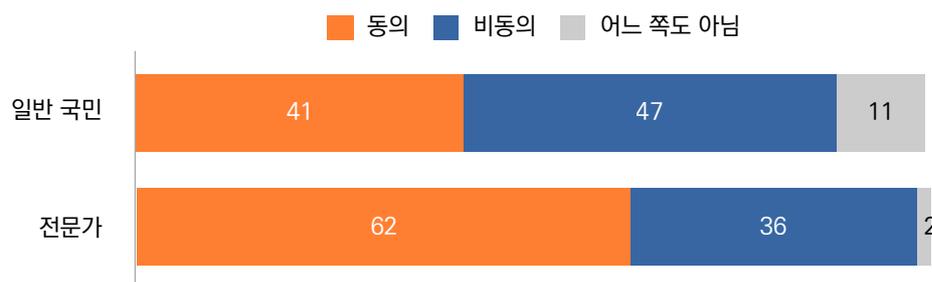
*4점 척도

북핵, 미국의 핵우산으로 대응 충분하다: 일반 국민 41% vs 전문가 62%!

- 또한 미국이 제공하는 핵 확장억제(핵우산)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일반 국민은 부정적인 인식(47%)이 긍정적인 인식(41%)을 앞선 반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인식(62% 긍정, 36% 부정)이 크게 높았다.

[그림]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충분성에 대한 인식*: 일반 국민 vs 전문가 (%)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으로 충분하다



※출처: 동아시아연구원(EAI), '2024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2024.10.24. (일반 국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 전문가: EAI펠로우 학자/언론인/외교관 102명, 웹조사, 2024.08.26.~09.04.)

*4점 척도